

그린 맵 작성 및 활용에 관한 연구 - 서초구의 사례 -

황기원 · 황윤혜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A Study on the Green Mapping and Its Application in the Case of Seocho-Gu

Hwang, Kee-Won · Hwang, Yoon-Hye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help out the settlement of the Green Map in Korea, and to suggest how to map, and help community people and environmental planner systematically take care of their own towns.

This study is also to introduce the green mapping and its usefulness, based on the Green Map Movement, which originated from New York City and has been expanding through the World. Environmental elements shown on the Green Map vary between countries and for the Seocho-Gu Green Map, We have decided to indicate the places that we are proud of, and dishonored of. Especially, this paper is focused on finding the hidden environmental resources in our daily lives.

Seocho-Gu, one of 25 self-governments of Seoul Metropolitan City is a representative of a top-notch section, which has various environmental resources. Since the citizens and government officials are open-minded in their environments, it is a suitable area to start the first Green Map in Korea.

As a method of locating the environmental resources, the "Foot Sensing Method" by which residents directly research, is the main difference from typical maps by the "Remote Sensing" which focused on the variety participation of the residents such as questionnaires, investigation with youth volunteers, users interviews which may be more meaningful than the Green Map itself.

The purpose of application plan is to preserve the environmental resources through the smooth feedback with the residents. Thus, it must be acted as a opening window linking them with the local circumstances. In line with this, this study proposed the trial-version Web Green Map and Green tour plan.

Recently, a need for an environmental map has been reflected in the environmental policies of Seoul Metropolitan City, and it is in place now. If environmental experts of different disciplines use the Green Map for landscape architecture, design, and city planning, it will help them make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needs of the community and to practice the user-centered design. Eventually, the Seocho-Gu Green Map will help its residents, tourists, government, and environmental planners continue establishing the healthy city environments.

It is expected that the green map will be employed as a useful method for establishing healthy city and town through right way of use and contents.

Key Words : Green map, Environmental Resource, Foot Sensing, Resident-participation, Making a City

I. 서론

도시민들은 고층아파트 사이의 좁은 산책로를 국립공원의 울창한 숲보다 더 자주 애용한다. 도시에는 환경적으로 퀘적한 장소가 드물지만 이와 같이 일상생활 속에 숨어있는 환경자원들은 주민들에게 고마운 휴식처가 된다. 그러나 이것은 지정 보호수이거나 유명한 문화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사라져 버릴 위험에 처한다. 재개발이 유행처럼 불어나면서 낡은 벽을 따라 무성하게 자라던 담쟁이와 손때문은 벤취과 같이 소중한 환경들도 함께 사라지는 것이다. 이제는 능동적인 주민의 자세를 활용하여 진정한 환경자원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보존·개선 하려는 프로그램 개발을 필요로 한다.

1995년 뉴욕, 한 디자인회사에서는 거주민과 방문객들이 환경적으로 중요한 장소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한 '그린맵(Green Map)'을 제작하였다. 도심 환경에 관한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도구로서 인정받은 그린맵은 UN에 의해 '글로벌 베스트 프로젝트'로 선정되어 세계 100여개 도시에 보급되고 있는 중이다. 한국에서는 아직 진행된 예가 없으나 주민의식 성장으로 볼 때 대표적 주거지역을 택하여 시도해 볼 가치가 있다. 특히, 주민이 직접 지도 작성에 참여하여 생활 속 환경 자원을 찾도록 하고, 좋은 자원뿐 아니라 나쁜 환경을 찾는 일은 환경 개선의 행동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그린맵의 한국적 정착을 돋기 위한 적용모델이다. 즉, 특정지역을 통해 작성된 결과를 기초 삼아

이를 지도화하는 방법을 제안하여 주민과 지역관련자, 환경계획가들이 체계적인 마을 가꾸기를 할 수 있도록 돋고, 나아가 그런맵 활용방안을 제시하여 지역환경운동으로서 확산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II. 그린맵의 이해

1. 그린맵

그린맵은 일반 정보가 아닌 '그린' 이라는 특별한 정보를 모은 지도이다. 이는 거주민과 방문객들이 지역의 대중교통수단은 물론 건강에 좋은 지역자원과 환경 친화적 업체들, 에너지 절약 빌딩, 또는 역사·문화적으로 의미 있거나 자연을 즐길 수 있는 장소를 쉽게 발견 할 수 있도록 돋는다. 즉, 시대가 요구하는 각종 환경정책을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종합한 지도라 할 수 있다. 최근에는 인쇄지도 뿐 아니라 웹 상으로 옮겨지면서 환경에 대한 보다 심층적 정보를 주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형식이 같을 뿐, 다양한 기획 의도에 따라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한마디로 정의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그러므로 사례를 통하여 이해를 돋고자 한다.

1) 뉴욕

그린맵의 효시적인 이 지도는 에너지 절약 빌딩, 전망 좋은 곳 등 60여 개 환경 친화적 요소가 표시되어

있다. 커뮤니티 가든지도, 자전거지도 등 해마다 다양한 종류의 결과물을 배출하고 있으며, 각종 환경단체의 캠페인 프로그램으로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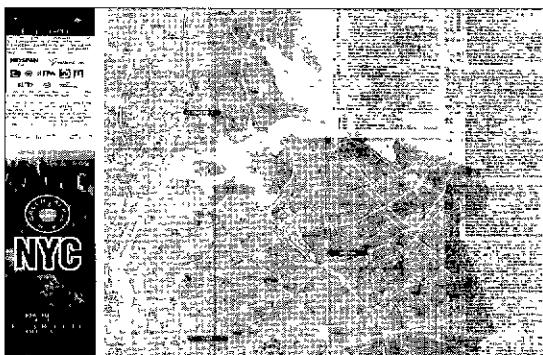


그림 1 뉴욕의 그린맵

2) 교토

풍수사상과 고유한 문화적 특성에 근거하여 제작된 일본의 첫번째 그린맵이다. 지역 성격에 따라 몇 개의 아이콘(체리나무, 나방, 단풍나무, 날다람쥐)을 새로 개발하여 표시한 것이 특징이다. 주부, 학생들의 참여에 의한 조사 후 디자이너와 시민단체의 연합으로 제작되었으며, 관광객 배포용으로 사용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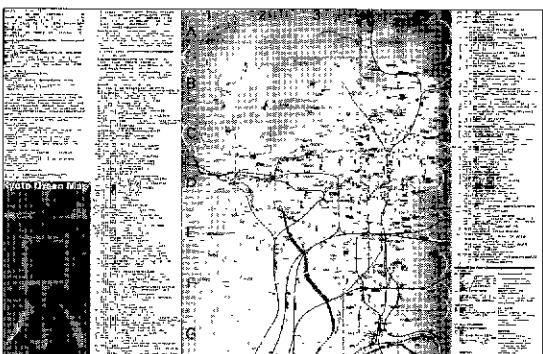


그림 2. 교토의 그린맵

3) 싱가폴

시청 주도하에 제작된 관광용 그린맵으로서 싱가폴 관광상품에 대한 홍보 역할을 한다. 특히, 밀림지대, 원시촌, 열대어 생식지 등 생태 정보를 알기 쉽게 표현하

여 다양한 계층의 호응을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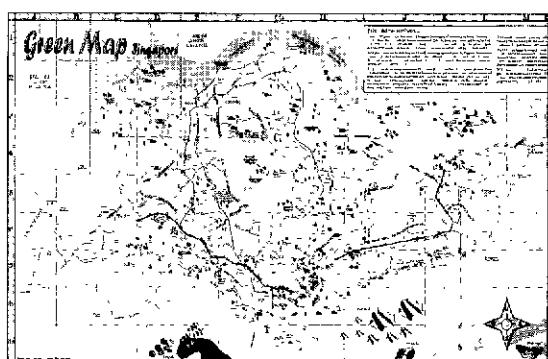


그림 3. 싱가폴의 그린맵

2. 관련 연구의 이해

그린맵의 형식적·내용적 타당성을 뒷받침해 주는 대표적 연구로서 마을 만들기, 녹색관광, 생태지도 등을 들 수 있다. 이는 그린맵의 위상 및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주는 역할을 한다.

1) 마을 만들기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국내 마을 만들기 사례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특히 공공환경 가꾸기를 위한 주민의 노력은 다양한 동기에 의해 빠르게 확산중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몇 가지 한계가 있다. 첫째, 눈앞에 보이는 문제점만 해결하는 식의 접근방법이다. 물론 마을 만들기가 계획보다 실천이 중요한 활동이지만, 지속적인 개발·관리를 위해 시공을 초월하는 장기적 계획 및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둘째, 주민과 시민단체, 전문가의 역할 중 한쪽이 부족할 경우 단순한 시도에 그친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한계를 극복하는 도구로서 그린맵을 사용한다면, 보다 체계적인 마을 만들기를 이끌 수 있을 것이다.

2) 녹색 관광

세계 각 국에는 지역의 생활이나 환경을 배려하는 인간적 규모의 녹색관광이 성황중이다. 이는 농촌 경제 활성화 뿐 아니라 도시 관광을 드는 새로운 사고로서 부각되고 있다. 도시를 소개한 기존의 관광 지도를 살

펴보면 기념물이나 상업지구 중심의 겉핥기식 소개가 대부분이므로, 지역 주민의 생활 속에 살아 숨쉬는 환경자원을 맛보고 싶어하는 관광객에게 빈약한 것이 사실이다. 녹색관광의 주요 사상에 착안하여,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이 자랑하고 싶어하는 요소를 직접 찾아 지도로 작성한 후, 도시 관광을 유도한다면 큰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3) 생태지도

생태지도는 지리정보체계(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 GIS)를 이용하여 도시 생태계를 파악한 지도로서 최근 각 나라마다 자연보호와 경관보존의 필요성 증대와 함께 활발한 보급이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서울시에서 작성 중인 생태지도는 지역의 자연보호와 경관관리를 위한 도구로서 활용될 예정이다. 그러나 생태지도는 대부분 원격 탐사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지도이다. 따라서 실제 상황에서 가치가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불투수 포장도가 높은 공동주택의 조경수목지는 생태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지역으로 분류되지만, 실제 주민들의 이용도가 높다면 보호되어야 할 중요한 장소일 수 있다. 그러므로 원격 탐사 방법을 이용한 생태지도와 함께 밀착 탐사 방법의 그린맵이 상호 보완을 이룬다면 환경 보호라는 진정한 목적 달성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관련연구의 특징과 한계점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하여 그린맵이 '마을 만들기'를 위한 도구로서, '녹색관광'을 지지하는 재료로서, '생태지도'의 한계를 극복한 밀착탐사형 조사방법으로서 역할을 해야함을 알 수 있다.

III. 그린맵 작성

1. 대상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하나인 서초구는 다양한 환경 자원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 지역이자, 환경에 대한 주민들과 구청의 의식이 열려있어 한국에서 첫 번째 그린맵을 시도하기에 적합한 지역이다. 또한 이웃으로 인식하는 보편적 단위이며, 시행과 관리면에서 유리한 단위인 자치구별 그린맵은 서울시 그린네트워크를 위한 바-

탕이 될 것이다.

서초구와 서울시의 환경관련 정책 및 세부계획은 지금이야말로 그린맵 만들기가 시행될 적절한 시기임을 지지하는 단서들이다(표 1, 2, 3 참조).

표 1. 서초구 일반 현황

면적	47,131 km ² 서울시의 7.8%(서울시 최대)
주거지	아파트, 단독, 연립주택 등 86,815 호
산	우면산, 청계산, 구릉산 등 5개
하천	양재천, 탄천, 사당천, 반포천 등 5개
녹지	1,667 hm ² (서울시 최대)
공원	양재 시민의 숲, 균린공원 등 116개소
교육시설	서울교육대학교, 이수중학교 등 85개소
복지시설	반포복지관, 카리마스복지관 등 219개소
체육시설	골프장, 배드민턴장 등 285 개소
문화재	현인릉, 잡설리 뽕나무 등 8개소
공연장	오페라 하우스, 교육문화회관 등 12개소

표 2. 서초구의 주요 환경운동

우면산 생태탐사교실	도시자연공원의 현장학습 프로그램
새마을 지도자회	양재천 대청소 등 각종 환경미화
좋은 동네 만들기회	주민들로 구성된 환경정비활동
푸른마을상 주상	주민의 힘으로 동네 소공원 만들기
경부고속도로변 자전거 통학로	주민들의 편리하고 페직한 이동 및 환경 보호

표 3. 서울시 환경 정책

환경부 주요정책	전국자연환경조사사업, 현장체험 환경교육 활성화
서울 환경 선언	청소년용 기상환경교육체계 구축
서울 의제 21	주민참여형 마을 만들기 활성화, 지역공동체 회복, 자연 친화적 생활을 위한 학습프로그램 활성화, 서울시 문화도시 제작,
환경부 시정공모사업	서울시 녹색지도 제작 및 웹 구축, 도심 속 작은 산 살리기,

2. 환경자원

자치구가 제시하는 문화자원, 정부의 환경정책, 외국 그린맵, 각종 보고서에 의한 환경자원, 오염도를 측정한 자료, 지리정보체계(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GIS)에 근거한 생태지도 등 표시할 수 있는

환경자원의 종류는 무한하다. 모두 궁극적으로는 환경에 대한 관심유도가 목적이나, 시간적, 지역적 특성과 제작 의도에 따라 표시해야 할 내용이 각기 다르므로 요소 선정에 신중해야 한다.

외국 그린맵의 경우, '채식주의 레스토랑'·'정신 안정 상태 지역' 등 현재 한국의 상황과 맞지 않는 요소

표 4. 환경자원의 종류

서초구가 제시 하는 문화 자원	국립중앙도서관/학술원, 예술원/국립 국악원/예술의 전당/서초구민회관/문화예술공원/윤봉길 의사기념관/침실리 뽕나무/서초동 향나무/청권사 부묘소/성안상공 신도비/다성사 목불석상/원지동 석불입상 및 석탑/한, 인릉
환경 정책에 의해 유도 할 환경자원	공공건물의 옥상과 담장, 짜루리 땅 등 유휴공간/대기오염자동측장소/소음지역/생태탐사교실/마다 남은 음식물 써주기운동 음식점/하천 보호 지역/쓰레기 무단투기/벼룩시장/쓰레기 분리수거/야생 동식물 서식처/악취 나는 곳/자전거 통학로/체활용센터/대기오염지
외국 그린맵 에 제시된 환경 자원	산지직판점/생태농업사이트/채식주의 레스토랑/환경상품취급점/태양에너지장소/풍력장소/리사이클링설시지역/환경재개발지역/문화적장소/박물관, 사적, 문화재/환경디자인사례/환경친화작전축/셀프메이드주택/어린이를 위한 환경친화 장소/노인을 위한 장소/정신 안정 생태지역/환경정보센터/공동체센터/환경여행지역/공공숲/공원, 웨크웨이 선지역/주요나무/꽃의 명소/가을 낙엽/데나무숲/나무가 있는 거리/야생울타리/공동체정원/산체증는지역/고기집기/야생조류 관찰지점/희귀생물생식지/쥘세이등지점/강가의 공원/습지/수자원/특이성기후와 기류/자연조형/공공스페이스/야생지역과 정보/캠핑/적설지역/전망 좋은 장소/별관측/식양보기 좋은 곳/음료수원/하수처리장/재활용지역/폐립장/고형쓰레기 이전기지/쓰레기 소각로/에너지 공급시설/그린맵 배치장소/그린맵 후원자/자전거 시설/자진거길/자전거 전용 도로/자전거 패킹/휠체어 사용 가능 장소/산책 적합지역/보행자 우선지역/보트선 하장/대체 교통 시설/환경 오염지역/교통 혼잡지역/소음원/대기 오염원/수질 오염원/석유, 천연 가스 시설/공해 지정지역/쓰레기 불법 소각/광산/원자력 시설
역사 및 문화 자원	풍수로 본 지형지색/동이름 유래/시대별 변천과정/고(古)지도/전해 내려 오는 전설
각종 보고서 (전문가)에 의한 환경 자원	조명가로(전망 좋은 지점)/서울의 공원 표시지 도/토지 이용 현황도/토양 희석도/현존식생도/비오름 유형화도/비오름 평가도

를 다수 포함하고 있으며, '환경친화기업'과 같은 산업 시설도 환경자원으로 포함하고 있어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띤다. 또, 구청이나 정부, 각종 보고서에 의한 환경자원은 이미 지도화 혹은 자료화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항목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였다(표 4 참조).

본 연구에서는 주민에 의해 경험적으로 얻어진 요소인 '자랑스러운 곳과 자랑을 방해하는 곳'을 찾는 데 중점을 두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대 이터로 존재하지 않은 내용이나, 주민의 환경에 대한 관심도를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요소이다. 둘째, 실제 이용 상황과 환경의 건강도가 완전하게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 주민의 생활 속 경험을 밖으로 표현해내는 것은 정책관련자들이 주민의 환경에 대한 견해를 파악하는 데 용이하다. 셋째, 자랑할 곳 뿐 아니라 자랑을 방해하는 곳을 찾는 일은 방치되었던 나쁜 환경을 개선하도록 행동을 일으킬 수 있다.

3. 환경자원 찾기

선행된 다수의 그린맵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주민의 경험적 정보를 지도에 표시하였다. 그러므로 환경자원을 찾는 형식도 주민 참여 중심의 밀착탐사(Foot

표 5. 환경자원 조사방법

단계	방법	대상	내용
설문 조사	부녀회를 통한 배포	주민 108인	-서초구의 공공환경 만족도 -어떤 점에서 만족하는지? -가장 관심 있는 환경자원은? -21세기 서초구의 미래상 -환경을 위해 주민이 할 일
청소년 현장 조사	도보 조사 후 지도에 표시	청소년 봉사자 70인	-자랑하고 싶은 곳 -자랑을 방해하는 요소
현장 인터뷰	표시지점에서 민년 주민과 인터뷰	주민 60인	-여기서 자주 옵니까? -왜 옵니까? -자랑할 만 합니까? -어떻게 개선되었으면(혹은 유지되었으면) 좋겠습니까? -그밖에 자주 가는(혹은 자 랑하고 싶은) 곳이 있다면? -그밖에 어떤 장소가 있었으 면 좋겠습니까?

Sensing)를 통하여 이루어 졌으며. 세가지 조사방법을 적용하여 최소한의 객관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였다.(표 5 참조) 그러나 모든 계층을 참여시키지 못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향후에는 사회적 이해와 지원 하에 다양한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보다 객관적인 그린맵이 제작될 수 있을 것이다.

1) 구민의식 설문조사

설문조사는 주민의 일반적 환경의식에 대한 파악을 목적으로 2000년 10월 1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되었다. 먼저 그린맵 작성을 위한 실질적 내용을 질문항목으로 택하여 서초2동의 1개 가정에서 예비설문을 실시하였다. 이를 토대로 수정·보완하여 본 설문지를 완성하였다. 각 동의 고른 참여를 위해 가장 활발한 주민 조직인 18개동 부녀회의 협조를 받아 배포하였으며, 90% 이상의 회수율을 보였다. 그러나 그린맵에 대한 이해부족과 몇몇 응답자의 불성실한 답변 등으로 인해 예상했던 결과보다 적은 내용을 바탕으로 결과분석이 이루어진 점이 아쉽다. 설문 결과, 사람들은 예상했던 것 보다 더 구체적으로 환경자원을 인식하고 있고, 알려지지 않은 환경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살기 좋은 환경을 위해 적극적 참여의지를 보인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2) 청소년 현장조사

현장조사에 청소년들을 참여시키기 위해 서초구 자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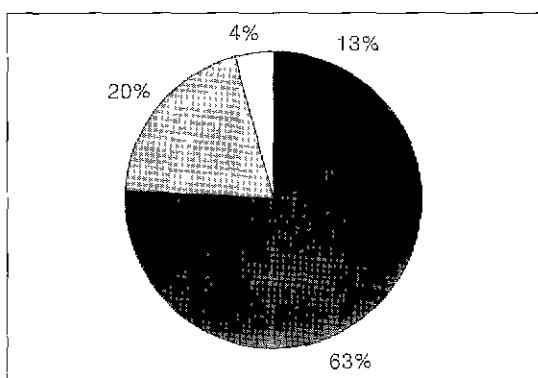


그림 4 환경자원 인식도

범례: ■ : 아주 많다; □ : 어느정도 있다;
· : 그다지 없다; ▨ : 전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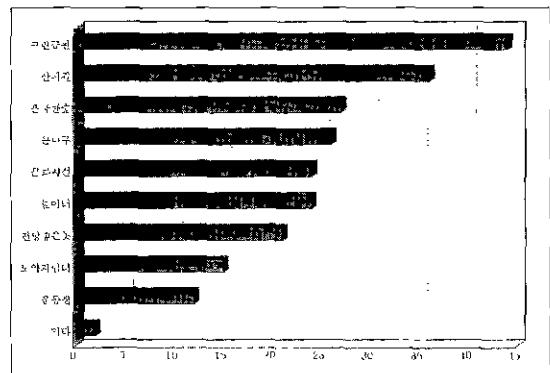


그림 5. 환경자원 인식도

봉사센터의 협조를 받았다. 자원봉사를 목적으로 모인 조사자이기에 취지를 쉽게 이해하였으나 구역 배정시 한 지점으로 편중되는 경우가 있어 고른 지점의 거주자 모집이 아쉬웠다. 또, 본 연구에서는 시간적 제약 때문에 한 구역을 1팀이 조사하였으나, 중복적 조사를 통해 이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본 과정은 2000년 7월 10일부터 8월 23일 총 100여 지점에서 진행되었다.

(1) 교육

조사 전날 한시간에 걸쳐 그린맵이 무엇이고 국제적으로 어떻게 진행 중인지, 그리고 환경자원이란 무엇인지를 숙지시키는 오리엔테이션 과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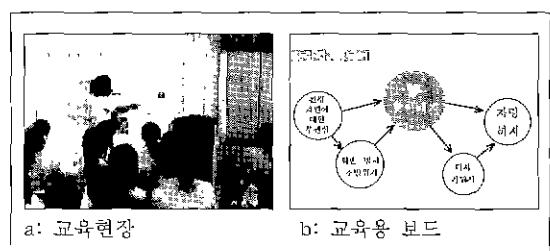


그림 6. 교육과정

(2) 코스 계획

조사당일 30분동안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미리 코스를 짜보는 과정이다. 대부분이 지도 읽기에 서툴기 때문에 독도법과 함께 블록과 길로 연결된 도시구조를 설명하였으며, 이 과정을 통하여 배정된 구역을 빈번 없이 조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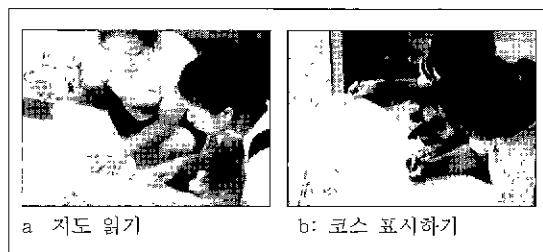


그림 7 코스계획

(3) 조사

1시간 30분에 걸쳐 지도 위에 환경자원을 표시하는 단계이다. 성실한 조사를 유도하기 위해 30군데 이상을 필수적으로 찾아야 하고, 마을버스 정류장을 모두 표시하라는 등의 제약조건을 제시하였으나, 몇몇은 거주지 임에도 불구하고 길을 헤매다가 조사를 끝내지 못하는 경우도 생겼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5팀(10명)당 2명 이상의 도우미가 조사지역을 이끄는 등 조사자 관리 방안이 요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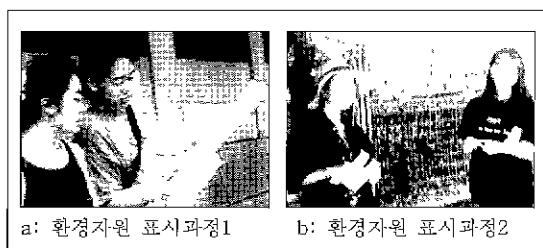


그림 8. 현장조사

(4) 지도 작성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환경자원을 파악한 후 30분간 전체 지도 위에 아이콘 스티커를 붙이는 과정이다. 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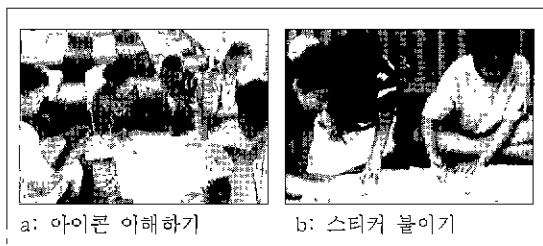


그림 9. 지도 작성

시간에 스티커를 이해하도록 범례를 달아 주었으며, 다른 항목 추가를 원할 경우 즉석에서 제작하여 나눠주는 등 최대한 조사자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유도하였다.

(5) 완성 및 토론

마지막으로 30분 동안 조사자들은 상호 토론을 통해 전체 구역의 특징을 파악하고, 개선점과 보존해야 하는 이유 등에 대하여 소감문을 작성하였다. 토론 시간을 보다 비중있게 할애하여 조사자의 의견이 충분히 표현될 수 있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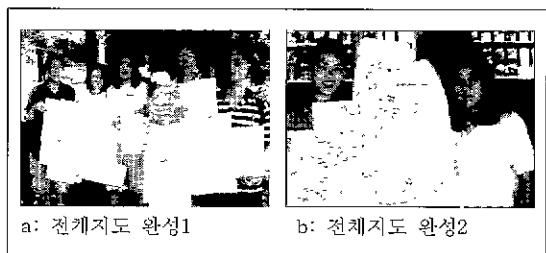


그림 10. 지도 작성

(6) 청소년 그린맵

여름방학 내내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작성한 그린맵은 전체 그린맵 제작을 위한 가장 중요한 바탕이 되었다. 마을 숲, 동네 산책길과 같은 알려지지 않은 환경자원에 대한 새로운 발견이 이루어 졌으므로 진위(眞偽)를 가리기에 앞서 이에 의의를 들 수 있다.

3) 현장 인터뷰

현장 인터뷰는 주민이 즐겨 찾는 장소 57곳에서 이루

표 6. 청소년 그린맵에서 찾은 환경자원의 종류

구분	내용
지향하고 싶은 곳	산책로* / 자전거길 / 운동하기 좋은 곳 / 주민공원* / 악속장소로 좋은 곳 / 벤치 / 어린이 놀이터 / 물가의 공원 / 풀밭 / 쓰레기 분리수거 / 넓은 공간 / 노인 쉬기 좋은 곳
	전망 좋은 장소* / 큰 나무 / 멋진 가로수 / 미들 숲* / 꽃의 명소 / 담쟁이
감상	불법쓰레기* / 우범지역* / 불법주차 / 시끄러운 곳* / 악취 나는 곳
방해요소	경험

* 설문조사, 현장조사, 인터뷰를 통하여 최종 그린맵에 표시된 요소이다.



그림 11. 청소년 그린맵-반포지역

범례:	■: 산책로;	●: 맷진 가로수;	▲: 불법쓰레기;	■: 월곶;	△: 차전거도로;	○: 담쟁이;	◆: 소음;	■: 노인쉼터;
♥: 공원;	♣: 큰나무;	■: 악취;	■: 어린이놀이터;	■: 미을숲;	⊗: 우범지대;	✿: 꽃의명소;	■: 불법주차;	
~~: 물가의쉼터;	○: 공터;	🕒: 악속장소;	◑: 건망증은곳;	■: 들판				

어졌다. 단시간에 이루어진 탓인지 질문의 의도와 다른 대답도 많았으나 직접 장소에 대한 선호도를 확인할 수 있어 바람직한 방법이었다고 판단된다. 인터뷰 결과, 42.3%가 매일 이용하는 사람들이었으므로 구체적으로 개선점을 지적하였고, 이웃 동네의 환경 자원도 정보만 있다면 이용하려는 의지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지금까지 환경자원을 찾기 위한 세 가지 조사 방법을

제시하였다. 각각의 과정은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으며, 이는 결과물인 지도보다 더 의미 있는 성과였다고 할 수 있다. 조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서초구 18개동에서 고르게 실시된 설문조사는 주민의 전반적 환경의식을 파악하는 데 일조하였으며, 본 연구의 진행방법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주었다. 둘째, 청소년 자원봉사자들이 시행한 현장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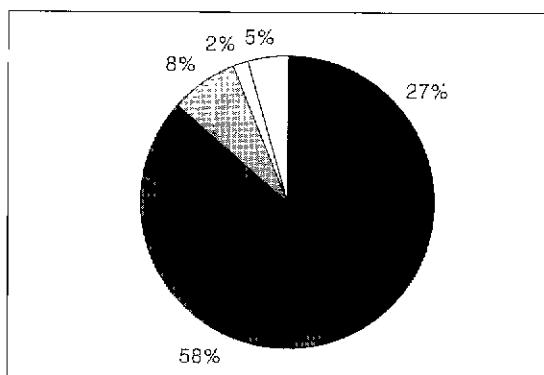


그림 12. 환경자원에 대한 만족도

범례: ■ : 아주 만족; ■ : 어느정도 만족;
 □ : 다소 불만족, □ : 불만족; □ : 무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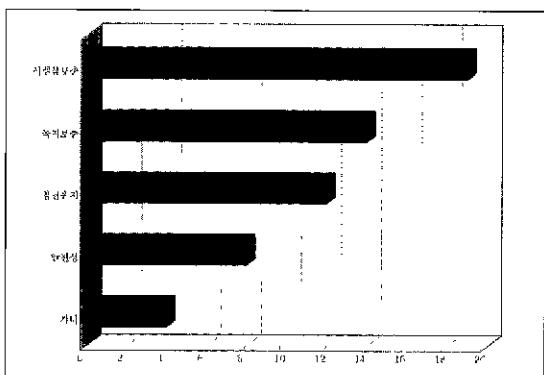


그림 13. 환경자원의 개선점

는 알려지지 않은 소중한 환경자원을 찾고 사회적 관심을 이끌어내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또, 이 과정에서 다양한 환경자원을 발견하였다. 세째, 환경자원 지점에서 이루어진 현장 인터뷰 단계는 현장조사결과를 검증하는 역할을 하였으며, 보존과 개선의 필요성을 파악하여 그린맵 활용 계획의 방향을 제시해 주었다.

4. 서초구 그린맵

설문, 현장조사, 현장 인터뷰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그린맵을 작성하였다. 이 지도를 통하여 환경자원이 고르게 분포된 서초구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이미 알려진 환경자원 외에도 마을 숲, 단지 내 산책길, 전망 좋은 장소 등 새로운 환경자원을 찾아내었으며,

주거지 근처에 체험할 수 있는 환경자원이 1개 이상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이외에도 지역별 세부지도 및 요소별 분석도를 통하여 각 지역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III. 그린맵 활용

서초구 그린맵의 특징은 주민 참여에 의한 밀착 탐사(Foot Sensing) 방법을 이용하였다는 점이므로, 모든 활용 계획 역시 주민과 원활한 피드-백(Feed Back)을 통한 환경자원 보존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웹 그린맵과 그린투어 등 두 가지 활용계획을 제시한다.

1. 웹 그린맵

웹 그린맵에서 이용자는 환경 자원에 대한 사진 및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표시된 장소에 대한 의견을 올리는 등, 지도 수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먼저 구조도에 따른 시험용 웹 그린맵(Demo-version)을 제작하여 가능성을 시험한 후 개시판 수정 및 보완, 기술적 업-그레이드(Up-grade), 그린맵 본부와 연계 등 이용자가 그린맵에 대한 지속적 관심을 유도하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2. 그린투어

그린투어는 점으로 표시된 환경 자원을 선으로 연결하여 연속적 경험을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망 좋은 장소를 연결한 'Buena Vista 코스', 산책로를 연결한 '체력단련 코스', 오염자원을 찾아 개선활동을 벌이는 '지키자 코스' 등을 계획하였다. 또한, 주민자치 단체인 '그린맵 운영위원회'를 설립하여 아래와 같은 세부관리를 주관하도록 한다.

- 혜성계획: 그린투어 유도계획, 그린투어 지원계획
- 주민중심의 그린투어 프로그램 관리
- 지속적 현장 관리(개선, 보수)
- 코스 상태 관찰 결과를 토대로 새로운 코스 개발
- 환경자원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지 취득
- 이용자를 위한 시설물 설치 및 관리
- 서울시 그린 투어 네트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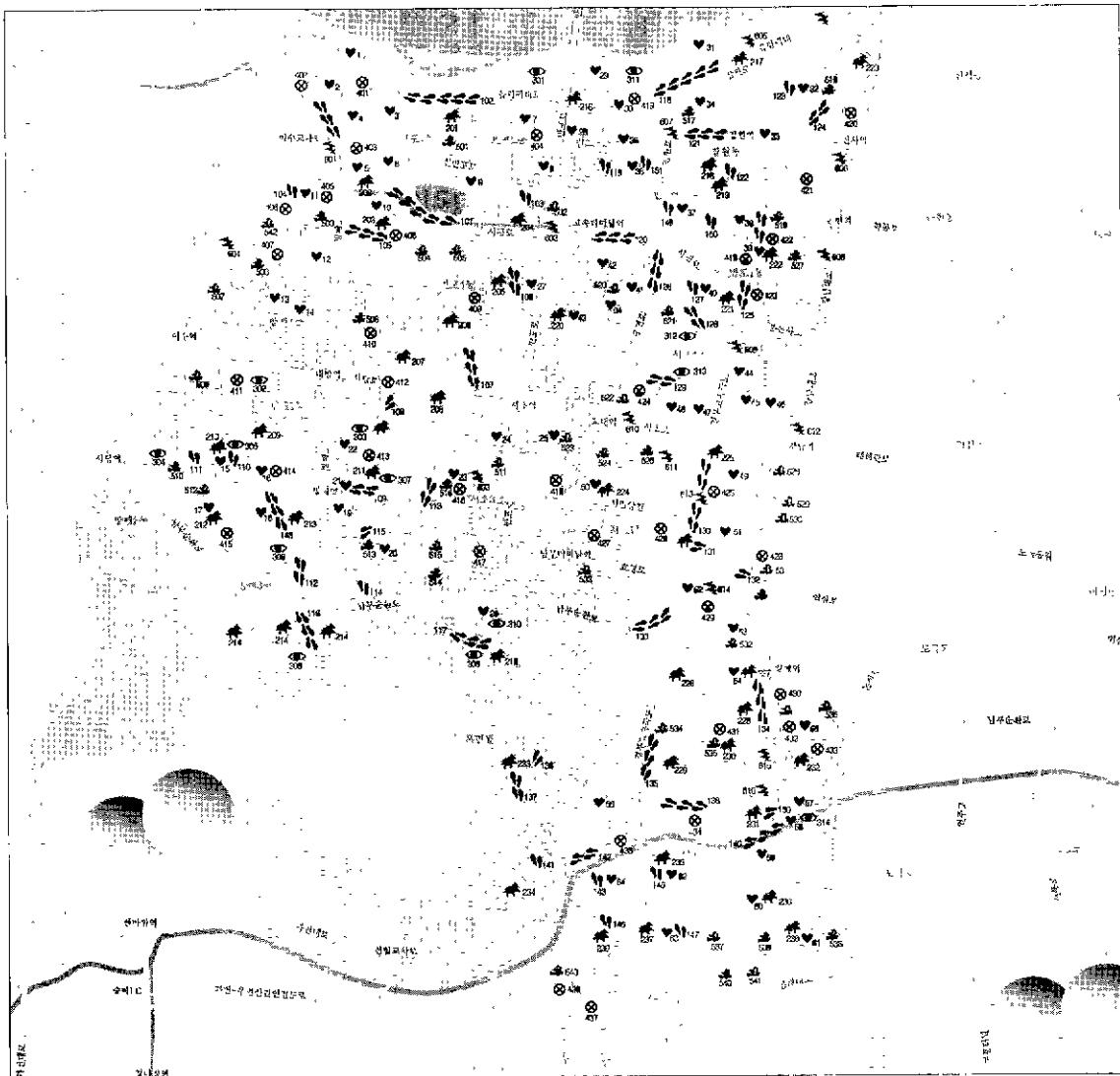


그림 12. 서초구 그린맵

- 범례: 1. 신계로; 2. 맷진 가로수; 3. 불내쓰레기; 4. 철공; 5. 지전거도로; 6. 담쟁이; 7. 소음; 8. 노인취기좋은곳
 9. 공원; 10. 큰나무; 11. 악취; 12. 이린이늘이터; 13. 마을숲; 14. 우영지대; 15. 꽃의명소; 16. 불법주차
 17. 물가의공터; 18. 공터; 19. 악속장소; 20. 전망좋은곳; 21. 풀밭

V. 결론

본 연구는 무분별한 개발과 공해로 괴폐해 가는 현대 도시를 건강하게 만들고자 하는 환경운동의 과정이다. 이는 뉴욕에서 시작된 미국적 환경프로젝트 중 하나이기도 하나, 동시에 21세기 한국의 환경관련 정책을 발

전시킬 새로운 실행 계획이기도 하다. 본 연구의 의의는 방법과 내용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1. 방법적 의의

환경 자원을 하나의 지도에 종합하는 일은 주민, 관

공서, 기업 등 각 분야의 필요에 의해 현재 도시 환경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므로 지도화 한다는 자체로 의미가 있다. 특히 그린맵을 작성하는 과정은 설문 조사를 통해 주민의 전반적 환경의식을 파악하고, 주민이 직접 환경자원을 찾으며, 현장 인터뷰를 통하여 조사한 환경자원을 검증하는 등 전 과정에 걸쳐 주민 의사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그린맵이라는 결과물 자체 보다 주민이 직접 주체가 되어 환경자원 찾기를 함께 한 과정에 비중을 두었으며, 이러한 시도는 주민참여 중심의 그린맵 작성 방법을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는 나아가 청소년을 위한 환경학습 프로그램으로서, 혹은 지역 환경운동의 구체적 실행프로그램으로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내용적 의의

생활 속 체험을 바탕으로 주민이 직접 작성한 그린맵은 주민과 관광객, 구청, 시, 환경계획가 등 각분야의 필요에 따라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자치구의 독립적 정책집행이 본격화되면서 구단위 환경계획에 독

창적 아이디어가 필요한 설정이다. 그린맵이 구민의 환경의견에 대한 청구로서 기능을 할 수 있다면, 이는 각 구의 정체성 찾기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조경·디자인·도시계획 등 분야별 환경전문가들이 특정 장소에 대한 환경계획 수립시 그린맵을 이용한다면, 대상지의 커뮤니티를 보다 정확히 이해하여 이용자 중심의 설계를 실천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서울시 환경정책에서는 환경지도의 필요성 및 추진계획이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설정이다. 이와 같은 움직임은 환경지도가 환경에 대한 정보를 보다 쉽게 전달할 수 있는 도구로서 인정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이 이미 파악하고 있는 수차상 접근만으로 환경지도가 제작된다면, 정부의 환경 정책을 위한 홍보지도에 불과한 결과를 낳을 것이다. 그린맵이 올바른 방법과 내용을 통해 작성되어 건강한 도시 및 마을 만들기를 돋는 도구로 사용되기를 기대한다.

인용문헌

1. <http://www.greenmap.org> GMS(Green Map System)본부.
2. <http://www.seocho.seoul.kr> 서초구청.

원고접수 2001년 1월 30일
최종수정본 접수: 2001년 2월 19일
2인 익명 심사필